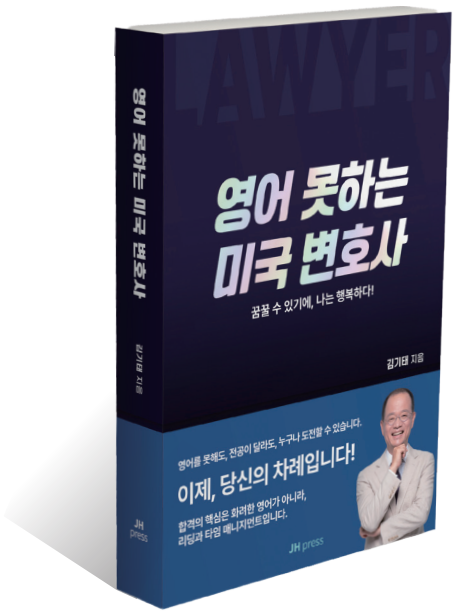
정리 정유미 자유기고가 puripuda@naver.com



〈영어 못하는 미국 변호사〉

지은이 김기태
펴낸곳 JH press

영어 못해도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영어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언어다. 학업과 취업은 물론 해외여행이나 외국인과의 교류에서도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영어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공부를 어려워하거나 돈과 나이, 시간 등을 이유로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번역 기술이 발달한 AI 시대에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그렇다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일까지 포기해야 할까?

이 책은 영어 한마디 못하던 지은이가 뉴욕주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도전 과정과 합격 전략을 담은 에세이 겸 자기계발서다. 영어에 서툴렀던 청년은 어떻게 7년 만에 뉴욕주 변호사가 됐을까? 24세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김기태 변호사는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에 단돈 34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인디애나대 블루밍턴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친 뒤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0년 뉴욕주 변호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KTK 아카데미와 도서 출판 KTK를 설립해 16년 동안 수많은 직장인과 대학생을 미국 변호사로 이끌었다.

책에는 시급 7달러를 받던 주류 매장 점원 시절부터 통장 잔고 17달러로 버티던 생활, 로스쿨 25곳에 전부 불합격한 경험, 토플 말하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날아간 일화까지, 미국 변호사를 준비하며 지은이가 좌절하고 도전한 경험이 담겨 있다.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과 16년간 합격생을 지도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의 특징과 합격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는 듣기도 말하기도 면접도 없고, 시험장에서 하는 일은 화면에 뜬 텍스트를 읽고 키보드로 답을 입력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지은이는 합격을 가르는 조건이 원어민 같은 화려한 영어 실력이 아니라 읽기와 시간 관리이며, 십수 년 동안 영어 독해를 훈련해온 한국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싸움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미국 변호사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단계별 준비 방법도 안내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와 절박함, 자기 성장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영어 실력이나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들, 미국 변호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